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제3차

- ◆ 일시 : 2018. 12. 6. (목) 10:04 ~ 11:45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석자 : 문화재위원(표석분과) 7명
  
- ◆ 보고안건 (총 1건)
  - 2018년 표석 정비 현황 보고
  
- ◆ 심의안건 (총 4건)
  - <여학교설시통문 기념 터> 표석 신설
  -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터> 신설표석 문안
  - <대한국적십자병원 터> 신설표석 문안
  - <별영창·읍청루 터> 신설표석 문안 및 위치 재심의
  
- ◆ 자문안건 (총 3건)
  - <한남서림 터> 표석 신설
  - <삼개포구>, <독립선언문 배부 터>, <서북학회 터> 표석 명칭
  - <조선극장 터> 외국어 병기

(개 의)

○ 000 위원장

2018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안건이 보고 1건 심의가 4건, 자문이 3건입니다. 연말도 되고 올해 마지막 회의라 안건이 상당히 많네요. 지난번 회의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한두 개 심의를 해야 할 것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표석 정비 실적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심의안건이 <여학교설시통문 기념 터> 표석 신설 표석문안 및 위치를

포함한 신설 여부 확정에 대한 문제인데, 여성사학 하시는 분들이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선생님 들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여성사 측면에서 이 여학교설시통문 기념 터의 표석 설치 타당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000 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 이 행사를 크게 했죠. 여성사 하시는 입장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사를 크게 했고 여권통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서 표석을 신설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이게 독립협회 그런 것 아닌가요? 독립할 때 여자들이 무슨 그런... 잘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 000 위원

아닙니다. 최초의 여성단체로서 찬양회와 관련해서...

○ 000 위원

근우회처럼 여성들의 찬양회 하고...

○ 000 위원

시기는 같은 시기입니다.

○ 000 위원

의미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양반 부인들이 주축이 됐어요.

○ 000 위원

찬양회는 아마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을 거예요. 중시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기념해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가 아니고 조선사람이 세운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

찬양회의 한자가 ‘양(襄)’자가 다르네요.

○ 000 위원장

순성여학교가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 000 위원

이 찬양회에서 여학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학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 000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순성여학교를 찾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찾고 누구네 집에 모였느냐만 찾고, 이시선 집이 여기라는 것만 입증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뒤는 바뀐 느낌은 있어요. 학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그것을 정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4·19 같은 경우가 그건데 나중에 순성여학교 찾았다고 또 세워달라고 하면 좀...

○ 000 위원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문을 돌렸다. 그래서 일종의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여권통문 발표’ 이렇게 해서 올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위치가 될 만한 곳에 표석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순성여학교 자리 터가 아니고 여학교설시통문 기념 터예요. ‘통문’에 방점이 있는 거죠.

○ 000 위원

모여서 계속 회의도 하고.

○ 000 위원

예. 양반 여성들한테 통문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평등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가 이런 통문을 만들어서 돌렸다. 이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호적 있잖아요. 이시선인가요? 어떻게 찾았는지 신기한데 이것을 찾았어요. 대한제국 한성부 호적표. 이게 규장각에 있는 것인지 찾아서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위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흥문동계 흥문동 8통 1호 겠죠. 이게 아마 호적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왜 전혀 안 써냈는지 모르겠네요.

○ 000 위원장

지금 경성 명세지도에 나온 것을 보면 통호 그 자체에 대한 위치 표시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죠?

○ 000 주무관

찾아본 자료 중에는 흥문동까지만 나와있습니다.

○ 000 위원장

번지수 제도가 있기 전의 호적표 같은데.

○ 000 위원

이분들이 어디다 세우자는 거예요?

○ 000 주무관

신한은행 백년관이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 중구 삼각동이며, 지도 상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문제는 이 취지에 따르면 순성여학교 설립과 찬양회 설립을 결정한 장소라고 붙였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팩트가 좀 더... 아 무리 봐도 못 찾겠네요.

○ 000 위원

11쪽 독립신문에 보면 ‘홍문골 이시선이 자기 집에 학교를 설립하고…’

○ 000 위원

그런데 그건 1897년 1월 5일이고 여학교설시통문은 그 이후에 1898년 9월 이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조그맣게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 것 아닐까요?

○ 000 위원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결정했다는 게…

○ 000 위원

저는 큰 자료는 없고 조그만 것만 받았는데 ‘여권통문작성 장소는 아니다.’ 라는 게 첫 줄의 의견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빠지는 거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여기저기에 모였는데 여기서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심의결과만 갖고 있는데요. 000 위원이 그 얘기를 했네요. ‘여권통문 작성 장소는 아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서 모일 때마다 낭독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김빠지는 의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장

순성여학교가 실질적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장

집에서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강의한 것 빼놓고 실질적으로 학교 이름을 걸고 교장이라든가 조직이 되어서 학교가 운영이 됐나요?

○ 000 주무관

순성학교가 1899년에 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 000 위원장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전 중학으로 모여 완정하기로 발문하고… 겸하여 양성원을 실시하였다더라.’

○ 000 위원

‘초대 교장은 찬양회의 부회장인 양현당 김씨가 맡았고, 2대 교장은 1903년 자현당 이씨가 취임하였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1905년 대한 매일신보에 ‘교장 이신원(자현당 이씨)이 사무원 한계창씨의 이론으로 교장직을 자퇴한다.’는 광고를 끝으로 신문기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 000 주무관

순성학교의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1898년에 시작이 돼서 2대, 3대 교장까지는 보이거나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간 것 같지는 않네요. 「천자」, 「동몽선습」, 「태서신사(泰西新史)」 등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반 부인들이 했기 때문인지 서구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동안에 설치됐던 표석들의 성격과 짧은 시간 내에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고 선언문 내지는 통문 정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의 성격으로 과연 그 의미의 비중을 따질 때 현재 여기에서 나온 통문 기념 터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타당성 여부를 생각할 때.

○ 000 위원

기존의 특별한 사례가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재평가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도 자세한 식견은 없지만 어쨌건 세워달라는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근거 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뜻 결정을 명쾌하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기본적으로 사료 보안을 요청한 다음에 재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위치 보정이 예를 들어서 이시선이 라고 하는 집 같은 경우에도 호적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주소가 옛날식 주소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일제가 만든 지번식 주소와 바로 연결하거나 매치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준 집 터 같은 경우 위치 보정할 때 이렇게 맞춰본 방식이 뭐냐면 거기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호적표를 이용한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호적표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위치인지 그야말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호적표가 같은 동네 묶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 1903년도 호적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번식 주소로 연결되는 것은 1912년도에 대개 보면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주를 파악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10년 사이에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그 집이 그 집이라는 이런 식의 연결구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일제가 삼각동으로 변경한 이후까지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옆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몇 통 몇 호라고 하면 그 몇 통 몇 호가 잔뜩 모여 있는 구역을 보면 일제가 번호를 부여할 때 대개 보면 공간이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집이 뭐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한 묶음들로 이렇게 대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이 동네 것을 통째로 가지고 그 이후 것을 배치해보는 거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제가 작성한 1912년도 것이라든지 아니면 1917년도 그 표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체크해나가면 그 위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몇 통 정도의 위치가 대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이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위치 관계도 그렇고 표석 설치로 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료 보안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명쾌하게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측면에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쨌건 이렇게,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 000 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신청 단체 쪽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

어요. 이시선의 호적표를 기준으로 당시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호적표를 봐서 이시선은 이사를 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지번을 엮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찾아가다 보니 지금 백년관 위치가 바로 이시선의 집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000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보는 사람이 ‘그런 논리로 해서 여기구나.’ 이렇게 될 거고 그냥 결과물만 달랑 여기 은행 집 터라고 하면 ‘아마도 홍문동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 정도로 추정했구나.’ 이런 정도로 딱 이해가 가지를 않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도 어쨌건 같이 달라는 거죠. 같이 줘야 ‘아~ 그렇구나.’하고 수궁을 금방 하는 거죠.

○ 000 위원

그 작업을 하기는 했군요.

○ 000 위원장

그럼 전반적인 의견이 신설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위치 문제에 있어서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사료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작업한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를 해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보강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겠네요.

○ 000 위원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다시 심의하게 되면 반려로 이해될 텐데.

○ 000 위원

취지를 얘기하면 되니까.

○ 000 위원

그러면 명칭은 뭐가 되는 거예요?

○ 000 주무관

그 표석 명칭도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단체에서는 ‘여권통문



120주년 기념 표지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학교설시통문이라고 제가 임의로 일단 안건을 올린 거거든요. 표석명칭도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제목이 참 어렵기는 어렵네요. 여권통문이라고 막연하게 표석에 딱 박아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 000 위원

설시라는 말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 000 위원

설립 정도가 되겠죠.

○ 000 위원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안 될까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붙였던 이름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 000 위원

'여학교를 실시하려는 통문'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니까 아마 그것을 따다가 한 것 같아요.

○ 000 위원

9월 9일자에는 여학교 설시 통문이 제목이 되고, 이것을 여권통문이라고 유권해석 할 수는 있겠네요.

○ 000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말이 어려우니까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서 써놓으면 아는 사람들이나 보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 000 위원

여학교 설립 통문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여학교 설립 통문의 의미보다는 여권 통문이 더 의미가...

○ 000 위원

그런데 여성사적인 관점에서만 본 것이니까 사료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단체 부인회를 만들고 학교도 설립하고 그렇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일단 통문은 여학교 설립이 중심이어서 '여학교 설립 통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좋아 보이네요. 이것을 어느 장소에 매칭을 시켜야 구체적 이름을 확정할 텐데.

○ 000 위원장

최초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여학교에서 최초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최초가 다를 수 있더라고요.

○ 000 위원

'최초'는 조금 위험합니다.

○ 000 위원

'최초'는 안 따지는 게...

○ 000 위원장

그러면 '여학교 설립 통문'이라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석대학처럼 꼬리가 막 붙는 거예요. ‘민족 최초’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표석까지 예시문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제목이나 문안까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게 낫죠. 어차피 보완하는 김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정해줘도 또 불만일 거고.

○ 000 위원

그렇죠. 좋은 방안이네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여기 건의서를 낸 기관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제시한 단체에 위치 문제하고 지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취한 다음 의견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준비할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보기에 근대 쪽으로 오다 보면 애매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학교 설립 통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붙이면 그 당시에 여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잠깐 설치되었다가 없어진 학교도 꽤 많을 수도 있는데.

○ 000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그것도 그렇지만 통문을 돌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학교 설립 통문이라고 가면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학교 설립이 아니라 여권이라고…

○ 000 위원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현재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이것으로 가고 그게 여권 통문하고 여권하고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보태지면...

○ 000 위원

싫어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 쪽에서 어떤 문안을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죠.

○ 000 위원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여권으로...

○ 000 위원

예.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통문이라는 말에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우리 표석설치위원회에서 볼 것 같으면 순성학교 터로 해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운동의 최초 통문을 발의한 곳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설명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 000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여학교를 실시하라는 통문이 있는데요.

○ 000 위원장

홍문동 소학교로 되어 있네요. 홍문동 사립소학교. 찬양회, 순성여학교... 찬양회 이름도 들어가야 하고 순성여학교 이름도 들어가야 하고.

○ 000 위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보완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것까지 다 받아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칭은 여학교

설립 통문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느 장소에 그것을 매칭시키냐인데 그게 여전히... 제목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위치 문제하고 제목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단체에 조금 더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그럼 일단 타당성 여부의 내용은 그렇게 정리해서 보류해서 하죠. 여학교설시통문 기념 터 표석 신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의견들 있으면 하시죠. 보완하거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있으면 하시죠. 000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통호수 제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당시에 통호수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지도 개념에서 그 위치를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 000 위원

통호수만 가지고는 지도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 개 그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 처럼 이렇게 호를 지우면 이게 몇 번지로 전환됐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 이미 체크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참고해서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터> 신설표석 문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여러 번 논의했던 내용인데 계속 보완해야 할 문제를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아마 의견을 제시해서 문안까지 정리된 것으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의견들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회의 때마다 여러 의견이 나와서 앞에 그 전신이 있었고 뒤에 변신한 게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제목을 잡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서 문안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1안, 2안, 3안 큰 차이는 없잖아요.

○ 000 위원

김종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1안에는 김종익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고. 지난번에 위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리를 3개 해놓은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김종익을 빼면 이쪽에서 빠질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굳이 사람 이름을 넣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기금을 내서 했다는 게.

○ 000 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1938년이 헛갈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김종익이라는 이름을 넣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물론 좋은 마음으로 냈겠지만 시절이 그분을 좋은 마음으로 놔두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 000 위원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고려대학교가 신청한 의도가 보였고 그것을 빼자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 무엇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혀 넣지 않는 게 조금 잘려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서울여자의과 대학으로 승격되었다고 끝나니까.

○ 000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역사를 다 써줘야 하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의대 앞에 세웠으면 또 모르겠는데.

○ 000 위원

그러니까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승격하고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다. 이 말을 하나 넣어주는 게.

- 000 위원장  
중간에 우석병원이 또 있다고요.
- 000 위원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현재 것하고는 연결을 하자는 거죠.
- 000 위원장  
그 연결 문제가 쉽지가 않죠.
- 000 위원  
표적은 그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 000 위원  
설사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살짝 물어두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왜냐면 현재 여러 유관기관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다 요구를 할 테니까.
- 000 위원  
또 유관기관이 더 있나요?
- 000 위원  
연대도 하고 싶고 의대가 있는 곳에서는 다 하고 싶죠.
- 000 위원  
요즘도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때에 지금은 정말 뭘로 됐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 000 위원  
최초의 여성의학전문대학 그것만.
- 000 위원  
저는 그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고려대학이 꼭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오히려 자르자고 그때까지는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때 이게 무엇으로 이어졌나. 어쨌든 현재와 관련되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000 위원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넓게 큰 관계를 생각해보면 특정한 기관과의 연계성은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고 인물도 그렇고.

○ 000 위원

예.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제가 하필 고려대학을 나와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000 위원

조선시대 관아 터 수백 개를 할 때에 전부 다 거기서 끝났어요. 수십 개가 지금 바뀌잖아요. 그것은 있었다고 하고 끝났지 거기에 몰입해서 경찰청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다 빼는 거죠.

○ 000 위원

그리고 우리는 공적인 논의기관인데 그것은 사잖아요. 사가 연결되면 될 수 있으면...

○ 000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를 강조해 주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고 요즘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때 현재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 000 위원장

그 정도까지 여기 작은 표석 안에 다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볼 사람들은 사람 이름도 나오고 변화된 얘기도 나오겠죠. 고대 의대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언급한 얘기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순수



하게 그 계승권을 가지고 현재 무엇으로 변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일단 이 학교가 문을 닫고 우석병원이 됐고 또 한참 중단된 상태가 있고 나중에 서로 그것을 인수하고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 000 위원

그러니까 세종원 터 같은 데 끝에다가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하는 거죠.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보구여관 터가 이대의료원의 전신이라는 문구가 사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 000 위원

거기는 장소도 그대로이고. 계속 그 자리이죠.

○ 000 위원장

어떤 객관성을 얘기하라고 할 때 그것 하나 가지고 객관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적이거나 표석 전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요구했던 기관이나 사람의 객관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할 때 표석은 가장 스마트하게, 가장 객관성을 떨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으로 객관적인 그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큰 안내문도 아니고 어떠한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냥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만 포인트를 두자는 말씀이지요?

○ 000 위원장

그런 정도로 하면 지금 1안 정도가 잘 정리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000 위원

김종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전의 강습소, 로제타 홀과 길정희, 김탁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빠지면서 김종익만 들어가는 거니까 불공평

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1안은 똑같이 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000 위원

1안이 제일 사려 깊은 문안인 것 같아요. ‘많은 여의사’가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 000 위원

1회에 40여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

많죠. 왜냐면 일제 말기까지 조선인 의사가 1천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0여 명을 냈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 000 위원

숫자를 다 일일이 하기 어려워서 그냥 ‘많은’이라고 한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여의사들이 다 여기 출신입니까?

○ 000 위원

다른 데는 들어가기 어렵죠. 산파만 좀 있죠. 여자 의사는 아마... 1안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외국어 병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문으로는 나가는데 밑에 영문이나 이런 것을 병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 000 위원장

제목 하나만 그냥 외국어 표기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용은 한국 사람들도 이것을 봐서 읽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외국인들이 이것을 찾아와서 읽고 그 설명을 들을 사람들은... 제목만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겠죠.

○ 000 위원

영문표기를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영문표기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한글보다 읽기가 더 나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full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목만.

○ 000 위원

이것은 개별 표석에 관한 게 아니라 모든 표석의 원칙에 적용되는 문제 아닐까요?

○ 000 위원

병기는 계속 회의 안건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님의 의향에 따라서 이것을 다 영어로 해야 하는데 왜 이것만 하나고 해서 안건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전부 다 하기는 어렵다. 금방 말씀하신 취지처럼 우리도 알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서양식으로 다 표현할 필요가 있냐?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효용성도 없다는 취지하에 대개 그 안건이 시장님 뜻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병기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서 서양 선교사들과 관련된, 보구여관 같은 경우에는 준필수 비슷하게 해서 병기하고 이런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타이틀을 넣는 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타이틀까지는 영어로 넣는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러면 3개 국어네요. 한자도 넣을 텐데.

○ 000 위원

표제는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병기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건 내용은 결정사항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보면 참고가 될 만하겠단다. 아니면 서양하고 관계가 있다. 특히 개화시기라면 영어를 좀 쓰지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어차피 하는 김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도

크게 영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새로 제작하는 상태 라면 영어 정도를 간추려서 넣는 것 자체를 크게 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은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시찰 가다가 보면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으로 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오는데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새로 할 거면 같이 병기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축약을 한다거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 000 위원

이것은 문장이 두 문장밖에 안 되니까 영어로 해도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것은 병원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을 변경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때 회의할 때마다 영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실제로 사후에 설치된 것을 지나가다 보면 영어가 또 있어요. 아마 제작과정에서 추가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 000 위원

저도 옛날에는 좋지 않더니 요새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어 가운데 영어가 갖는 지위가 이를테면 비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서로 언어권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공용어로 쓰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표상하는 언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 해방을 위한 표어가 제3세계 여러 나라 소통을 돕는 측면도 객관적으로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만.

○ 000 위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왔을 때 그래도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영어라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 000 위원장

지구를 전체 단위로 본다고 그러면 가장 유력한 언어가 영어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기본 핵심만 영문화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냥 제목만 달아도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어려운 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표석이 다른 안내문도 아니고 조그만 면적에 표석 글자 몇 개 넣는 건데 표석에 관심을 갖고 와서 읽고 문제 삼거나 그것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극소수일 테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목만 가지고도 찾아나갈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 000 위원

그 때 문제됐던 게 하나가 그 명칭을 영어로 바꾸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발음을 그냥 쓸 것인지 풀어쓸 것인지 그런 논란이 있다가 “그만 두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원칙을 정해야죠.

○ 000 위원

그것을 그래도 문화재청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건들도 같이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 000 위원장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거예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문화재 명칭도 우리 고전적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많이들 다듬고 고쳐 써나갔는데 지금도 쓰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자기들 임의대로 써서 통일되지 않은 게 많아서 다듬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도 몇 단계 앞으로 거쳐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다음번 회의에 안건으로 하나 올리시죠. 언젠가 문장은 국립국어원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영어도 어떤 기관을 거칠 것인지. 그때마다 누가 개인으로 할 수는 없고.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번역에 대한 프로세스가 따로 있기는 해요. 관광사업과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관광안내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쪽에 의뢰해서 저희가 번역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 000 위원장

그것을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국립국어원에 자체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그 비슷하게 일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죠.

그러면 일단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터 신설표석 문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죠. 1안으로 하고 외국어 표기는 조금 더 검토해야겠네요? 현재 의견이 하나로 통일 안 됐잖아요. ‘제목만 하자.’,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 넣자.’는 얘기가 같이 나왔는데요. 제목만 다는 것으로 할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그래도 좀 자세히 내용을 넣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극히 제한된 면적인데, 글자 몇 자 안 되는 건데 과연 그 몇 글자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가.

○ 000 위원

제 생각은 일단 영어로 한 번 번역 부탁을 해보고요. 영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심의를 한 번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표지석 세우기 전에.

○ 000 위원

그런데 새로운 표석에 공간이 남아서 영어를 넣는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여기 16페이지도 새로운 표석 문안으로 해서 1안, 2안 했는데 123자, 96자거든요. 기준이 100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리하게 깎아내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0자를 해놓고 남으니까 영어를 또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100자를 넘을 수도 있다는 원칙이 더 융통성이 있죠.

○ 000 위원

결론은 제목만.

○ 000 위원장

제목 중심으로 하고 혹시나 또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의견 내주세요.

○ 000 주무관

그럼 표석명만 영문 번역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 000 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국적십자병원 터> 신설표석 문안에 대해서 문안 확정하고 외국어 병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와 똑같은 문제인데 고대 의대하고 서울대 의대하고 서로 다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 000 위원

2안이 낫습니다.

○ 000 위원장

1안을 2안으로 줄인 것을 보면 큰 무리 없이 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어 표기 병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문안은 2안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2안 별 문제없죠? 앞의 것과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만 병기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대한국적십자병원 터라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산에 있는 <별영창·읍청루 터> 신설 표석 문안 및 위치 재심의. 그리고 외국어 병기 문제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 000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머릿돌 있는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 000 주무관

이 머릿돌이 없어지고 표석을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 000 위원장

위치가 가능해요? 사유지 같은데요.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주고 여기를 단장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000 위원장

위치는 그럼 별 문제없이 결정될 수 있겠네요. 그럼 문안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표석에 담기로 한 거죠.

○ 000 위원

지난번에 그러기로 했죠. 문안 좋네요.

○ 000 위원

한강 조망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많이 찾나요?

○ 000 위원

읍청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시를 쓰고...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청루는 별영창에 딸린 누각으로 한강 조망이 뛰어났다. 읍청루는 한강 조망이 뛰어났다는 말인데... 주어가 두 개가 붙은 게 아닌가.

○ 000 위원

‘조망’이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죠. 나는 눈이 좋다.



- 000 위원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 000 위원  
읍청루는 조망이 뛰어나다.
- 000 위원  
간단히 고치면 한강 조망이 뛰어난 누각이다. 별영창에 딸린 누각이라고  
또 설명해야 하니까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그래요.
- 000 위원  
예. 문제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문장도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어 표기는 어떻게 할  
까요?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참고로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동네는 아니지만 이 건물에 들어간  
판매점은 지금 외국인 대상의 판매점이라서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바라보는 한강 경관들이 뛰어났습니까?
- 000 주무관  
쭉 보이는 해요. 여기 그런 곳 있잖아요. 여행 도중에 중간 중간에 쇼핑  
센터에 내려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 000 위원  
써주는 게 좋겠네요.
- 000 위원

영어를 넣어보죠.

○ 000 위원

그럼 이것은 본문까지 영어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안건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진행의견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회의 자체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닌데 표석 문안이 지금 계속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렇게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보시면 좋겠지만 처음 결정된 게 6월이거든요.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마다 표석 문안을 검토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처음 설치하겠다고 통보 하거나 어쨌건 결정된 게 반 년 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물론 충분히 논의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너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든지 이런 식의 큰 흐름을 하시고 표석 문안 같은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완전한 의견일치를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각자 의견 편차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하지 않고 예전에는 대개 회람을 해서 거기에 특별히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취합해서 다시 회람하고 이렇게 3~4번 정도만 하면 대개 그 선에서 특별하게, 물론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셨던 문구와 달라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게 짧게 보름 내에 완료가 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문구 같은 경우에는 큰 의견만 해 주시고 회람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표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마음도 급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 000 위원

문안은 진짜 회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충할 것 하면 되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최종문구를 여기서 만드 시면 되니까요.

○ 000 위원장

자문 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남서림 터> 표석 신설 자문에 대한 건입

니다. 먼저 이 자체를 검토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표석설치위원회에서 한남서림 터의 표석 설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 000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앞선 출판사들이 몇 개 표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초기의 서점이나 출판사의 계속 표석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원칙부터 정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여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산하의 재단인데 여기는 서점보다는 과거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환수의 역할을 했던 곳.

○ 000 위원장

문화재 환수, 전형필 선생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 같은데요. 어때요, 한남서림이 비중이 크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 000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여러 서점 계통이라든지 이것은 몇 개 설치됐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여기 신청요지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서점 그 자체만의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의 기능은 일단은 먼저 앞선 것은, 물론 시기마다 운영자가 다르고 한데 여기서 포인트를 둔 것은 전형필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공간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제하에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던 곳이라는 취지로 세워달라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여튼 이것은 서점이기도 하고 출판사이기도 하고 특히나 고서점이죠. 고서점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936년도인가 인수한 후에 이순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골동거래상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주고 받고 하거나 하여튼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는 정보를 받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 문화재 보호의 거점이라는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짜 그런 활동을

했느냐 하고 입증을 해보라고 하면 거기는 조금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신문 자료에 세월이 조금 흐른 이후지만 회고담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여기서 그런 식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는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운영은 이순황이라는 사람이 했지만 분명 소유주는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서점 자체에 매입을 했던 점 등 그 서류가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신청 자료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형필이라는 인물 자체의 위상이라든지 어쨌건 그 사람이 정말 이 한남서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이런 식이 있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활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표석 설치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냐면 표석 문구에 표시를 할 때 전형필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아는 문화재 중에 어떤 게 이것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지 그런 사례를 몇 가지를 더 넣어주면 이 공간의 가치가 더 크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적 보완조사랄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설치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문구는 여기 제출한 상태만으로는 흡족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정 이후에 표석 문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조사를 조금 더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후에 한 회를 더 넘겨도 되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재결정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여권통문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순성여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시선의 집은 여러 장소 중에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도 전형필이 중요한 인물인데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이 골동품 산 것은 전부 다 경성구락부에서 한 것이지 한남서림에서 한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전부 모아놓고 전형필 하나로 표석을 만든다면 한남서림이 대표적인 곳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의미는 있지만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성구락부도 세워야 하느냐 하는 논리도 있고 엄청난 것을 거기에

뒀는데, 그 자리에서.

○ 000 위원

경성구락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 000 위원

경성구락부라고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다 골동품을 거래하던 총 집결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000 위원

그럼 한남서림은 어떤 자리인가를 또 입증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샀는데 전형필이 자기 집에 났다, 서림에 났나 그 여러 가지가... 한남서림이 몇 개였느냐도 표석문에 써야 하거든요. 출판사는 했지만 한남서림 일부를 세운다, 뭐 그런 것들을...

○ 000 위원

나중에 경성구락부도 해 주죠. 꼭 전형필만 아니더라도.

○ 000 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경성미술구락부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물론 조선 사람이 여기 이순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런 흔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보물급, 국보급이 있는 미술품, 도자기라든지 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큰 소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자를 여기 와서 경매를 시켜서 또 분배하는 거예요. 대개 그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 000 위원

경성미술구락부에서요?

○ 000 위원

예. 여기 전형필 같은 경우에도 이순황이라는 사람하고 기보 신조인가 하여튼 일본인의 하수인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여기 경성미술구락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물건이 나오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거점이 한남서림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000 위원

긍정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일단 긍정적이죠.

○ 000 위원

전형필의 골동품이나 문화재를 입수하던 중요 통로 가운데 하나 정도로 해도...

○ 000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21쪽에 보면 서점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안동서관이라든가 박문서관 이런 데가 더 유명했던 것으로 아는데 영천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한남서림보다는 더 유명했던 고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이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000 위원

그런 유명한 데도 들어오면 해 주고 이것은 전형필과 관계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 000 위원

물론 전형필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의 중요성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중요했던 서점들이 먼저 표지석이 서야 그다음에 맞지 않을까.

○ 000 위원

서점은 세창서관이라고 하는 곳과 회동서관인가요? 저기 을지로 조흥은행 거기에 있는 곳하고...

○ 000 위원장

광문회 터도 있었잖아요.

○ 000 위원

그건 조선광문회라고 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로 보시면 되죠. 신문관은 아니고요. 사실 신문관도 위치는 오히려 을지로 쪽인데 신문관이라고 세우지 않고 조선광문회라는 출판사 겸 단체이기는 한데 어쨌건 그 공간은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단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쨌거나 최남선 개인 집터입니다. 개인 집인데 거기에서 온갖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했던 식의 집이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다 보면 광문회도 그렇고 신문관도 그렇고 주소지는 을지로 몇 가로 잡혀 있어요.

○ 000 위원

회동서관은 표지석이 있군요.

○ 000 위원

예. 서점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건 그것대로 중요성이 있고 부각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꼭 그런 식의 맥락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필과 문화재 보호라는 특수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설치 위치가 인사동 한 가운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안배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형필 선생이 here를 거점으로 모았구나.’ 그런 실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전형필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까요.

○ 000 위원장

통문관 맞은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 000 위원

위치상으로는 그런 것 같네요.

○ 000 위원장

여기서 또 하나 검토할 것은, 제 생각인데요. 과연 그렇게 전형필의 업적이나 한남서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 면에서 서관활동 이런 것들을 공문서와 더불어서 모아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는 데 기여한 전형필의 업적을 기린다면 한남서림이라고 하는 구성하고 그 뒤로 연결된 간송미술관과의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앞에 보면 경성구락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것들이 대부분 그 뒤로는 간송미술관 쪽으로 모아지는 것 아닌가요?

○ 000 위원

그렇죠. 여기서 구입하고 보관이나 전시는 거기에서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죠. 여기는 어쨌건 백두용인가 앞에 한 그 사람도 출판 겸 일반 서적도 팔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사동의 고서적 골목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 원조격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각 집의 방구석에 있던 것을 가지고 돈이 궁하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나오면 그것을 파는 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니까 그 가게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본인이 상주를 못하니까 하루에 한 번 꼴은 가게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전담하면서, 이 사람도 지명도가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 사람도 곧잘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사들이거나 매집하거나. 어쨌든 이 가게에 직접 들고 오지는 않더라도 이게 정보 창고가 되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접촉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료를 보면 어쨌건 이 서점을 사들이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뭔가 가게를 펼쳐놔야만 하는 것이라서 사람도 보면 좋은 물건인데 보통 보면 전문적인 거래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 와서 쭈뼛쭈뼛하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자리를 꼭 지키도록 해서 누가 오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들이는 게 오늘날 잘 아시듯이 국보, 보물이 있는 게 상당수는 다 그런 식으로 사들이거나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국문과 쪽에서 보면 한남서림은 1930년대까지 춘향전 같은 목판본을 계속 찍은 데예요. 목판본이 없어진 시대인데 여기는 계속 있거든요. 100자 속에 그래도 정보를 넣으려면 이것도 여기에 뭘 써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점인데 골동품만 강조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 000 위원

예를 들어서 결정해서 한다면 첫 구절 정도는 운영했던 백두용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출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구절 정리하고 중간 이후에는 어쨌건 전형필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구절은 문화재 보호의 거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건 따르기 나름인데 그런 기능을 했다는 정도로 대개 정리가 되겠죠.

○ 000 위원장

예. 그러면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표석 설치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하고 문안하고 받아서 진행을 하죠.

○ 000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국외재단에 통보를 하면서 보완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자료보완하고 실질적인 활동이라든가 그 자체의 이런 것을 더 서류 보완을 해서 하죠.

다음에 <삼개포구>, <독립선언문 배부 터>, <서북학회 터> 표석 명칭 문제. 여기는 크게 문제될 게 있나요? ‘삼개포구(마포포구)’라는 것을 일치시키자는 요구인가요?

○ 000 주무관

일치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이 뜻을 문안으로 설명해 주든지.

○ 000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00 위원

국립국어원의 표기에 따르면 ‘삼개[마포]’할 경우에는 대괄호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죠.

○ 000 위원

이것은 표석 자체가 일반 표석의 형태는 아니고 자연석 형태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것이라서 사실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손을 대는 순간에 똑같은 것을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금방 앞에 했던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바뀌면 이것은 강변인데 그것을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되고 또 기존대로 그냥 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끊임없이 지적되고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 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삼개라고 불린 것을 우리가 또 고칠 수는 없죠. 한자는 이렇게 쓰고.

○ 000 위원

설령 교체라든지 부가설명을 넣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 되는 거죠.

○ 000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예.

○ 000 위원

그럼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 000 위원

어렵기 때문에 구태여 꼭 하자면 약간 변칙이기는 하지만 그 옆에 작은 안내판을 부가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데요. 어쨌든 기본형태가 저거라서...

○ 000 위원

작은 안내판을 뒤서 삼개를 한자로 하면 마포다 이렇게 하면...

○ 000 위원

그것도 거추장스럽기는 하죠.

○ 000 위원장

근데 바꾼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의미 전달상으로 크게 다를 게 없  
잖아요.

○ 000 위원

딱 보고 알겠네요. '삼개를 한자로 쓰면 마포구나.'

○ 000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일치시키면 더 이상해요.

○ 000 위원장

한강변 정리하면서 처음에 설치했던 것을 밑으로 통째로 옮겨갔죠. 우수지  
넘어가서 한강으로 가야 하는데 1년에 몇 명이나 가서 보는지는 모르겠지  
만... 고치거나 할 가치나 의미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놔  
두는 것으로 하죠.

○ 000 위원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000 위원장

최초에 설치된 것이라서 아마 없을 거예요.

○ 000 위원

강변 쪽에 이렇게 보면 강동구 거기도 이런 식의 스타일이고 강변 쪽 외  
곽지에 있는 것은 그런 식의 스타일이더라고요.

○ 000 위원장

그럼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표석명칭 표기 두 번째, <독립선언문 배부 터>, <서북학회 터>

○ 000 위원

서북학회를 건드리면 아까 조선광문회 이런 것이 다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권통문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권통문 그게 어떤 곳이나. 그러니까 표석명칭이 길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 하던 곳’ 이렇게 더 붙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기가…

○ 000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한 표석 안에 두 개의 제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 000 위원

따로 따로요

○ 000 위원

두 개가 다른 표석이죠? 위치가 같을 뿐이지.

○ 000 주무관

아니요. 삼일대로 안에 몇 미터 간격으로 한 개씩 있어요. 선언문 배부 터와 서북학회가.

○ 000 위원장

먼저 독립선언문 배부 터라고 하는 그 자체의 표석 명칭의 문제. 선언서 배부 터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 000 주무관

바꿔달라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신 거예요, 어떤 것이 타당한지.

○ 000 위원

자문의견이 둘 다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만 내는 거니까요.

○ 000 위원

여기는 자문이 아니라 시행까지 해야 하는 거죠.

○ 000 위원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결정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 000 세계유산등재팀장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변경되면 여기서 표석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거죠. 문구가 변경되기 때문  
에요. 왜냐면 기존에 설치된 표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치된 표석이면서  
삼일대로로 가니까 같은 공간에 사업이 서로 겹쳐 있으니까 거기에서 문  
제제기를 하고 고쳐달라는 취지겠죠.

○ 000 위원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 000 위원장

결국은 제목하고 그 표석 문안하고 해서 ‘문’자를 ‘서’자로 바꾸는 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 000 위원

고치면 좋겠지만 돈을 들여서 일부러 그것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장

돌에 새긴 것이라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다

바뀌야죠.

○ 000 위원

고치는 순간에 돌 표지석은 폐기되고 새로 스테인리스로 바뀌어야 해서요.

○ 000 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해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000 위원

공식 문서상의 명칭은 선언서예요. ‘독립선언서’가 아니고.

○ 000 위원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 000 위원

예. 원래 선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독립선언문 혹은 독립선언서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써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자체는 원래는 그냥 ‘선언서’라고만 썼지 거기 기미독립선언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선언서’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이든 독립선언서든 기미독립선언문이든 그것은 그때 그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 000 위원

서북학회 터도 이왕이면 ‘회관 터’, ‘집 터’ 이게 훨씬 더 좋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고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000 위원

회관이라는 건물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니까, 서북학회 터가 훨씬 의미가 있죠. 회관 터라고 하면 ‘학회의 다른 건물이 또 다른 데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 000 위원장

회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도 다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 000 위원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극장 터> 외국어 병기 문제인데요. 이 전체를 다 영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 000 위원  
외국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 기존의 돌 표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구를 정비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차피 돌 표판 자체가 당연히 폐기가 되는 스테인리스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또 새로이 축약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긴 거죠. 옛날에 비하면 긴 것은 아니지만.
- 000 위원  
그럼 문안을 정리를 하셔서 회람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외국어 병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안까지 정비한 뒤에 영문 병기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심의를 다 끝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의견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회의는 다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